

2010년 2월  
석사학위 논문

# 自然과 生命循環 이미지의 繪畵的 表現

- 本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미 술 학 과

정 정 임

# 自然과 生命循環 이미지의 繪畵的 表現

- 本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

Pictorial Expression of Images of Nature and Life  
Circulation

2010년 2월 25일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미 술 학 과

정 정 임

# 自然과 生命循環 이미지의 繪畵的 表現

- 本人의 作品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 崔英勳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정정임

# 정정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진 원 장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 윤 성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 영 훈 (인)

2009년 11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 ABSTRACT

## Pictorial Expression of Images of Nature and Life Circulation

– with the researcher's works –

by Jung Jeong-im

Advisor : Prof. Choe Young-hoon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of Chosun University

Human beings in modern society have rather led a isolated and exhausted life in the civilization of the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They face with despairing situation that even the homing instinct to nature has been lost by desertification, acid rain and greenhouse effect due to climate change from air pollution. What are most urgently required for human include reflection, consolation and finding out an alternative for mental devastation according to material desire an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What occurs to us first in considering nature and human life is the question, what is the life of human and nature? But,

since the life of human and nature are closely related, it is difficult to discriminate between them separately and they are indivisible. Human life is just the life of nature and it is also included in the life of nature, and it is widely known that all human lives are based on nature. That is, all things and human being who is born in nature, have relationship with nature and evolve in nature is just nature.

When human beings understand the circulation and order of nature and conform to the law of nature as a part of nature, they can dream a rich life and pursue the inner true order and harmony. Reflecting on nature is to recover the essential nature of human being as a component of nature and can be also explained as the entire liberation from all inherent value judgement or social restriction, namely the pursuit of absolute freedom.

Nature offers infinite materials in artistic activities and the sense of beauty from impression of nature is expressed to one's own emotion and idea and then produced as an art work. Although we reproduce nature as it is, it is reinterpreted by individual subjective emotion and is newly created.

To express art as the oriental view of nature is to recognize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to realize that the artist's spirit of nature is inherent in it. From

such a view, this study is developed with the theme of 'pictorial expression of images of nature and life circulation'.

Nature is an important factor embracing all lives as long as human being exists. When human beings treat the property nature as it is, they can feel the truth of nature and pursue order, harmony, truth and beauty of nature in an effort to have unity with nature.

The researcher recomposed circulative image of life which can make sympathy between nature and human and inner ego with images felt in nature and made a chance to recall the meaning of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 목 차

##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목적 -----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

### II. 이론적 배경

- 1. 자연의 조형과 상징
  - 가. 조형요소 ----- 4
  - 나. 상징에 대한 이미지 ----- 5
- 2. 생명의 개념과 표현 ----- 7
- 3. 인체와 자연의 예술
  - 가. 인체와 예술 ----- 11
  - 나. 자연과 예술 ----- 16
  - 다. 순환의 특성 ----- 18

### Ⅲ. 방법적 연구

1. 형상화된 생명 이미지 -----	21
2. 점으로 표현된 조형미 -----	24
3. 표현 기법 -----	28

### Ⅳ. 작품분석

1. 작품 개요 -----	31
2. 본인 작품분석 -----	32

### Ⅴ. 결론 ----- 39

참고문헌 -----	41
도판목록 -----	43
작품목록 -----	44

# I. 서론

## 1. 연구 목적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간이며, 만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자연과 관계하여 탄생되어 성장하고 소멸되는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술의 창조 작용도 이러한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삼라만상의 존재와 활동을 통찰하고 또한 의식의 조명에 의해 그것을 재현하려는 예지의 기쁨인 것이다.

예술가는 자연에 대하여 때로는 보통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통찰력 있는 눈으로 자연의 형체 밑에 투시되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한다. 특히 많은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물 중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지나간 인고의 세월, 무한한 생명력 등을 일깨워 주고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정을 불러 일으켜 인간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나무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의연성, 침묵성, 강직성 등의 힘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의한 광학기계의 출현으로 새로운 시각경험을 하게 되고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의 외형만이 아닌 숨어있는 다양한 형상들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형상들은 명명할 수 없는 새로운 유기체들이지만 예술가의 상상력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자연속의 생물과 무생물 사이를 넘나들게 하여 예술적으로 새로운 형상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 인체의 세포와 혈관 이미지를 주관적의미로 해석하여 나무의 여러 가지 조형적요소를 생명력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곧 생명과 순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순수형태로 표현하고자 하는데 있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예술에 있어서 표현은 시대에 따라 끝없이 변화를 거듭했다. 현대미술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예술가 자신의 독창성과 개성을 중요시한다. 즉 자신의 내면세계에 존재하는 자연에 대한 심상을 형상화함으로써 저마다의 독자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본인은 인체의 혈관 이미지를 나무와 강줄기라는 우주적 상징으로 표현하고, 나무와 강줄기가 지니고 있는 자연의 순환현상을 생명의 역동적 이미지로 인식해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생기와 인간의 정서 등을 표현하고자 했다. 여기서 표현이란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감정의 표출이며, 대상의 표현이란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 그 대상을 통해 느낀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작가의 주관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작품의 연구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

註 1)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73. p.27

관계를 이론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을 참고하여 나무의 상징성과 형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조형세계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혈관의 이미지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재해석한 조형적 표현을 통해 현대 미술사에 나타난 생명력에 대한 표현양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에 따라 펼쳐지는 상승과 돌출 현상을 아크릴 물감의 특성을 활용하여 표현해, 이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선에 의해서 생기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과 강인하고도 역동적이면서 사실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생명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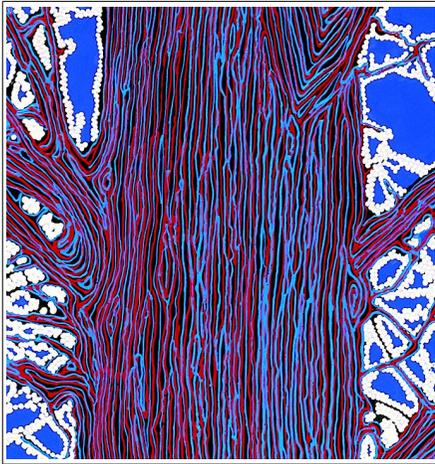
## Ⅱ. 이론적 배경

### 1. 자연의 조형과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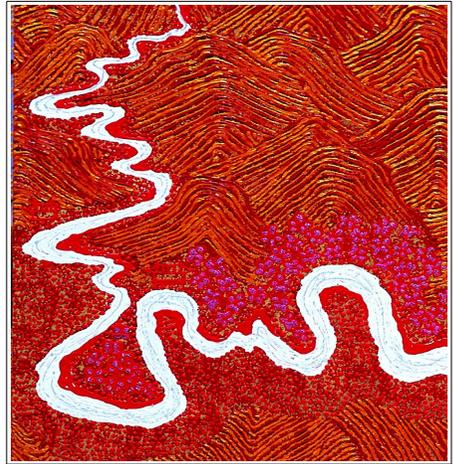
#### 가. 조형 요소

조형의 대상으로서의 나무는 인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조형미는 이미 예술의 소재로서 풍부하게 이용되어왔다. 나무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며 일조, 기후, 토양 등 환경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수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예술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나무의 일반적인 특성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형적 관점에서 형태의 특색이나 법칙성에 관하여 탐색할 필요도 있다. 다시 말해 나무속에는 조형의 원리가 존재하고 모범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구조가 내재하여 있다는 것이다. 즉 형태법칙은 곧 조형의 기본이 된다. 나무의 형태에서 직선적인 것과 곡선적인 조형적 특성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직선적인 미에서는 긴장, 굳셈, 적극성, 단호함 등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고, 곡선적인 미에서는 부드럽고 유동적이며 친근한 여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나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조형적인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작가가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찾아냈는가 하는 점이며, 그것이 독창적인 작품을 추구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작품 1] 〈직선적인 표현〉 2009



[작품 2] 〈곡선적인 표현〉 2009

예술에 있어서 상징의 존재방식은 조형형식에 의하여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형형식은 이념으로써의 형(形), 즉 이미지와 재료사이에 기술이나 기법을 개입시켜 상호관련을 갖고 대상을 개체화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재료에 형상을 부여하는 작가의 조형행위는 총체적인 것으로써 복합적인 정신의 과정이나 개성적인 상상력의 표현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나무에서 얻어지는 조형물이란 - 비물질적 언어체계 속에서 상징화된 단어처럼 화석화되어지기 보다는 - 질료에 가하는 에너지의 전이로 작가의 심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의미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 나. 상징에 대한 이미지

나무는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의 한 생애를 함축성 있게 설명해주며 인내와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삶의 굴곡을 견디어 나가는 표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나무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은 나무가 지닌 인고의 세월과 모성애(母性愛) 같은 무궁함 때문이며, 본질과 형태상 특징이 생명력을 내포(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일한 형식 속에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으며 자연물 가운데서 나무는 하늘을 향해 치솟는 운동을 한다. 그런 연유로 중국고전에 해가 뜨는 동쪽을 가리키는 용어를 부상목(扶桑木)이라 불렀다. 그런데 꼭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매듭에서 가지를 뺄음으로 해서 마치 태양광선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방사선 모양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나무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하나의 씨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한 개의 씨가 자라면서 일시에 많은 가지를 키우고 다시 그 가지에서 수많은 씨를 여물게 한다. 그러나 결국 한 개의 씨를 수백, 수천 개로 불어나게 하며 잎이 피고 지며 수없이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다.

태양의 본질은 생명인데 태양이 뜨면 거기에서 쏘아대는 빛은 지구상의 생물에게 골고루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 나무의 생명력이 만물을 비추는 태양의 생명력과는 비유되어질 수 없겠으나, 방사선으로 가지를 펼치는 것은 태양의 폭발원리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해 뜨는 동쪽방향의 이름을 비유한 연유도 이와 같은 이치라 볼 수 있으며 나무는 태양처럼 밝은 것과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sup>2)</sup>

칼 융(Carl. G. Jung)<sup>3)</sup>은 “예술은 상징이다. 작가가 경험한 것,

---

註 2) 박용숙, <한국의 미학 사상>, 이월서각, 1991. p.83, 85

3) 칼 융(Carl. G. Jung, 1875~1961) :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1904년 경 정신분석의 유효성을 제일 먼저 인식하고 연상 실험을 창시하였고 최초의 국제정신분석학회 제창자가 되었으며, 그의 심리학은 성격을 내향형(內向型)과 외향형(外向型)으로 나눈 것은 그의 큰 공적이다

지각한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상징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상징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른 바 ‘상징’이란 용어는 관습적이고 분명한 의미 이외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다. 즉 우리에게 숨겨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사물이나 어떠한 형태에 자기 나름대로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변형된 상징행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상징이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대상물을 통해서 미지의 것을 암시하는 방법이다.<sup>4)</sup> 상징은 상상력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그 상징은 변형변질(變形變質)을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표현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표현 대상에 생명감을 주어 표현 불가능한 느낌 같은 것을 암시하고자 했다.

## 2. 생명의 개념과 표현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자연계에는 스스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힘과 변화가 있다.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은 생성의 힘과 변화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것은 생명적 충동과도 같은 유기체형태로 표출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물체로 보아왔던 것은 모두 유기체이며 생물은 유기체이다. 그들 물질은 끊임없이 타오르고 새로이 태어나는 유기적작용을 하는 특징을 가진다.

---

註 4) Jaffe Aniela, 이희숙, <미술과 상징>, 열화당, 1995. p.117

세포도,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도, 또 조직이 속한 기관도, 나아가서는 그 기관을 포함하는 유기체도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한다. 실상 물질적 실체란 단 한순간도 같지 않다. 그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만일 물질대사가 몇 초 만에 멈추어져도 그 결과는 종합체의 파괴와 생성의 소멸로 치 달는다.<sup>5)</sup> 그러므로 본인이 탐구하는 생명적 형상도 공간과 시간 속에 자리 잡은 생명력을 지닌 어떤 개체, 즉 자가 증식과 번식을 하는 자율적인 생존구조를 가진 생명체의 형상인 것이다.

앙리 포시옹(Henri Focillon)<sup>6)</sup>은 그의 저서 <생명의 형태>에서 “형태는 곧 하나의 생명체이다.”라고 말했고, 발자크(Balzac)는 “모든 것이 형태이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형태이다.”고 언급한 것처럼 형태는 그 자체도 생명이 있는 생물체라 할 수 있다.<sup>7)</sup>

따라서 우주의 몇 천억 개 태양계와 은하계의 천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총 세계, 불교에서 말하는 시방세계(時方世界), 삼천세계(三千世界)<sup>8)</sup>에 있는 일체의 먼지 하나까지도 전부 우리가 아직 그 섬세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단지 혼돈의 물질로 보이는

註 5) Suanne Langer(1975), 박용숙,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문예출판사, 1984. p.60

6) 앙리 포시옹(Henri Focillon, 1881~1943), 리용대학 교수, 미술관 관장(1913~1924), 소르본대학 교수(1924~1937), 저서로는 <형태의 삶> <호쿠사이> <불교미술> <19세기의 회화, 고대복귀와 낭만주의> <로마네스크양식의 조각예술, 형태들의 역사에 관한 연구> <중세 그 생존과 각성, 미술과 역사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7) 이일, <조형 형태론-홍익논집Ⅲ>, 홍익대학교출판부. 1971. p.38

8) 시방세계 : 아무것도 없는 텅빈 세계  
삼천세계 : 소천, 중천, 대천의 3종류의 천세계가 이루어진 끝이 없는 세계

것이지 실체는 비 생물이 아닌 생물, 즉 생명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9)</sup>

실러(Schiller, 1864-1937)는 인간행동에서 생명이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미’ 라는 감각을 이미 분화된 감각으로서 미 감각의 근원적 형태는 실로 생명의 감각이라고 했다.<sup>10)</sup>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생명력이 존재하는 것이 미이며 생명력이 풍부할수록 미가 풍부해진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을 우주의 가장 강력한 창조의 힘이라 하여 세계의 전체적 비전(Vision) 중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 베르그송(Henri Bergson)<sup>11)</sup>은 만유의 궁극적인 존재 설명근거를 생명의 약동에서 찾으면서 생명에 대해 위대한 긍정을 하였다.<sup>12)</sup> 지성에 대한 직관과 본능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의 철학은 시간과 변화가 중심개념이며, ‘생명의 약동’, ‘지속’, ‘창조적 진화’ 등의 술어로 요약할 수 있는 생철학<sup>13)</sup>에서 생(生)은 아는 것보다 근본적인 과정인 것이다.

또한 우리 인간을 우주의 부분이기 보다 우주의 표현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우주로서 인간은 생명의 약동과 자극을 통해 움직이고 생명의

---

註 9) 김지하, <현대문명의 위기와 시대정신>, 서울 안암문화사, 1985. p.12

10) 김소라, <기초적 형상을 통한 내면세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p.26

11)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 : 프랑스 철학자, <시간과 자유의지 : 의식의 직접 소요에 관한 이론>, <물질과 기업>, <창조적 진화>,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사상과 움직이는 것> 등이 있고 1927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12) F. Gregoire(1947), 김형효, <생명의 문제>, 삼성문화문고, 1974. p.115

13) 생철학 : 주체적인 생의 반성 또는 그 표현 내용이 철학적 내용, 생에 대한 의지를 말함. 쇼펜하우어 이래 19C말- 20C초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간, 본능, 자유를 강조한 베르그송 외에 짐멜 셸링이 대표적 철학자이다.

약동은 물질이나 정신이상의 것보다 더 근본적인 실재이다.<sup>14)</sup> 따라서 베르그송은 생명의 본질을 자발성으로 규정하며, 이때의 자발성이란 활동성으로 진정한 자발성은 끝없이 새롭고 창조적인 활동성을 재개하는데서 성립하기 때문에 스스로 활동성이 소진될 어떤 정적인 상태를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sup>15)</sup> 자연활동과 인간활동의 총체적인 주체로서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생명현상을 이해할 때 생물의 범위는 보다 광범위해지고 모든 물(物) 자체가 생명이 있는 생물체라 할 수 있다.

예술에 있어서 생명력의 표현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는데 초기 원시동굴 벽화에서 볼 수 있듯이 동물이나 인간 형상들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던 것에서 점차 그것이 나타낼 수 있는 대상에서 독립하여 생명의 힘으로써 작품 내에 내포된 에너지로 나타나게 된다.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 소재를 원시미술에서 찾는 것은 자연의 메말라버린 형태 대신에 자연 속에 감춰진 신화나 상징적인 정신성의 생기, 즉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는 유기체 형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충동이나 본능의 영역에서 표출된 원초적 생명감을 내포하는 원시미술은 눈에 비치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해하고 지각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묘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느끼게 한다.

사유하는 우리의 인식은 필연 그 자체로서 육체의 변화를 넘어서

---

註 14) Movtan white, 신일철·서광자. <20C 철학자들-언어와 분석의 시대>, 1987. p.77

15)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p.136

자신의 창조적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하나의 생명체가 살아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재나 미래에 행할 창조적인 행위에 관계해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예술에 나타난 생명의 본질은 무한한 힘, 창조적인 활동성에서 오는 생명의 약동과 그 에너지에 있다.

### 3. 인체와 자연의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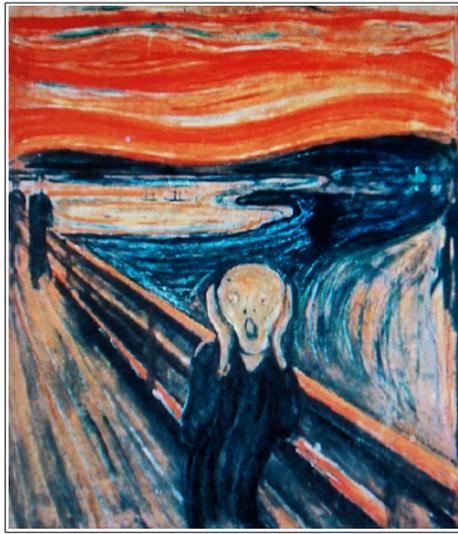
#### 가. 인체와 예술

인체의 이상적인 미가 주로 관심사였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몸에 관한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술에서의 인체는 언제나 중심 테마(Thema)로 이루어져 왔고 문화와 사회 속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그리고 인체의 표현양식으로는 다양한 매체로 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뭉크(Edvard Munch)<sup>16)</sup>는 작품 〈도판 1〉을 통하여 인간의 내적인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강렬한 색채와 형태의 왜곡, 울동하는 듯한 선 등의 표현방법을 사용하였다.

인체에 있어서 역사를 알아보면 고대의 모든 회화에서는 가장 주요한 인물의 몸과 동작이 그림의 중심을 차지하였고, 화가는 정해진 규범에 따라 재현의 기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행하여졌으며 자신의 주관적 심미관을 함부로 표현하기에는 외부적 제약이 많았다.

---

註 16) 뭉크(Edvard Munch, 1863~1944) : 노르웨이 화가, 주요작품 〈생명의 프리즈〉, 〈별이 있는 밤〉, 〈백야〉 등이 있다.



〈도판 1〉 절규, 1893

중세까지 우리 인간들의 인체에 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이었다. 특히 과학적 사고가 태동하기 시작할 르네상스(Renaissance)<sup>17)</sup> 시기에 몸에 관한 해부학<sup>18)</sup>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정밀한 해부도<sup>19)</sup>를 남겼으며, 낭만주의시대<sup>20)</sup>에 이르면서 인체의 고전적인 건축성의 의미는 약화되고 모든 인체는 감상적이거나

註 17) 르네상스 운동(Renaissance) : 문예부흥이라고 번역되며 14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서 맨 처음 이탈리아에서 일어나 유럽 전역으로 파급된 문예·문화사상의 혁신운동이며 정치·종교 방면으로도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 근대문명의 단서를 이루었다.

18) 미술 해부학(Anatomy for Artists) : 인체 또는 생물체를 해부하여 그 각 부분의 구조 위치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미를 표현하여 시각으로 감상하는 태도

19) 해부도(解剖圖) : 생물의 몸 한 부분 또는 전체를 쪼개어 내부를 조사한 후 그림으로 그려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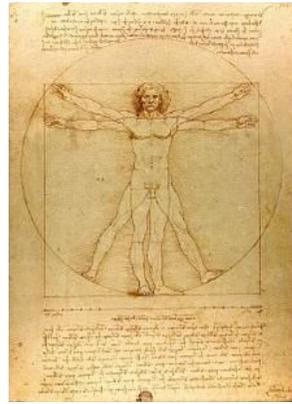
20) 낭만주의 시대(Romanticism) :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난 예술 및 철학사상의 경향, 미술에서는 회화가 로망주의의 참된 분야이며, 인간과 자연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이상한 풍경의 정취가 감도는 화면이 생겼다.

감각적인 대상으로 변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 이탈리아)는 화가, 조각가, 건축가, 발명가 등 르네상스적 인문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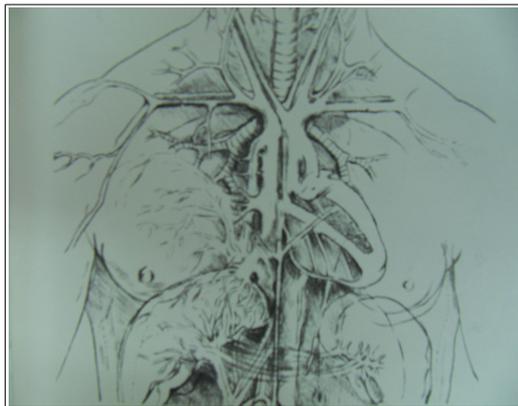


〈도판 2〉 다빈치의 1513년경 자화상



〈도판 3〉 비트루비우스 인체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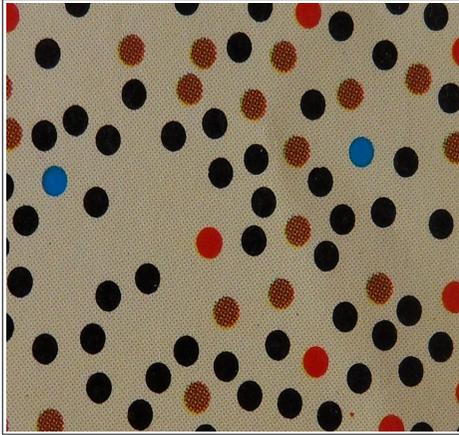
그런가하면 인체해부 및 빛과 그림자를 비롯한 과학연구 등 그의 많은 업적은 뛰어난 창조성에 기인하였으며, 1503년부터 1515년경까지 30여구의 시체를 해부하여 많은 해부도를 남겼다.<sup>21)</sup>



〈도판 4〉 다빈치가 그린 해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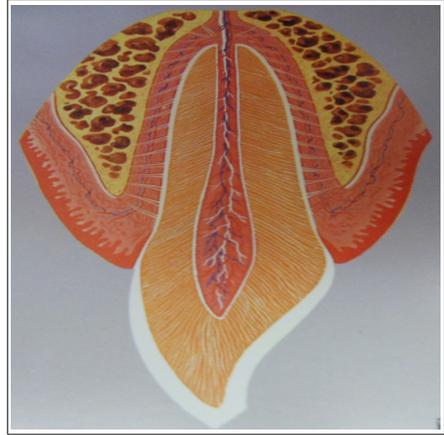
註 21) 히키노 신지, 임종환, 〈인체 대 기행〉, 진산출판사, 1992, p.210

현대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체의 신비가 심도 있게 밝혀지고 있으며 첨단기계를 통해 몸 안 구석구석을 훤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도판 5〉 피부 안에 있는 감각점

- : 온점      ● : 냉점
- : 통점      ● : 압점



〈도판 6〉 치아의 단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파울러<sup>22)</sup> 박사는 “인간은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작은 별들로 되어있다.”라고 말했다.<sup>23)</sup> 우리 인체는 우주의 별처럼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으며 미술처럼 점·선·면으로 구성되어 인체 속에서 자연과 예술이 생성·성장·소멸의 순환 과정을 반복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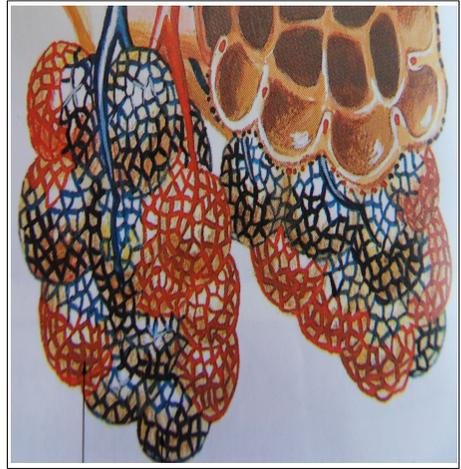
세포는 점의 조형미를 이루고 지구 두 바퀴 반 정도를 도는 거리에 해당하는 혈관 또한 몸 안에서 아름다운 조형미를 이루는데 이는 예술의 상위개념과 동일선상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註 22) 파울러(William Alfred Fowler, 1911~1995) : 미국의 물리학자, 별의 진화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변환과 화학원소 생성 등 현상을 원자핵의 입장에서 실험·이론 양면으로 연구, 그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핵력·핵 분광학·항성에너지 등의 연구에도 전념하여 지구물리학과 우주학에 영향을 미쳤다.

23) 김낙준, 〈학습도감백과 “인체”〉, 금성출판사, 1989, p.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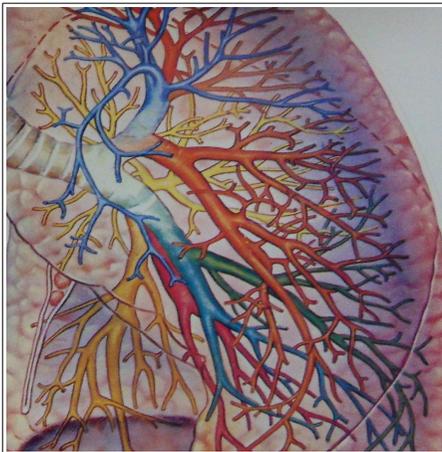


〈도판 7〉 귀의 전정기관을 확대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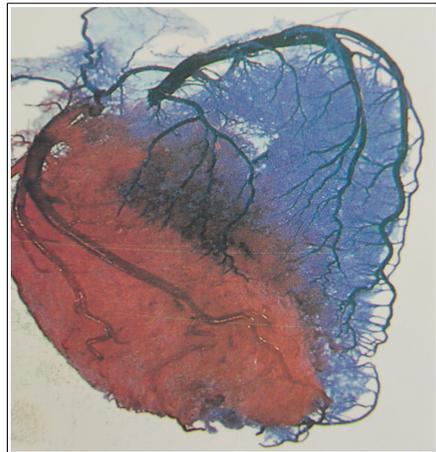


〈도판 8〉 허파의 혈관

또한 인간과 나무는 생태적 특징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명의 순환과정과 생성·소멸의 과정을 자연의 원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한다.



〈도판 9〉 모세혈관과 폐포구조 단면



〈도판 10〉 심장 혈관

## 나. 자연과 예술

자연의 모든 것은 심오한 질서 속에서 조화있는 통일을 이룬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 속에 생성되고 소멸해가는 자연의 순간적 생명체로 존재하며, 예술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예술가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인식하여 자연과 인간의 내면세계를 결합시켜 표현한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예술이 될 수는 없으며 예술가의 심상을 거쳐 형상화 될 때 비로소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연은 종합적이며 근원적인 존재로서 예술을 위하여 그 소재와 기회를 언제든지 제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선택과 표현법이 달라 서로 다른 개성과 예술의 상징성을 드러냄을 볼 수 있다.<sup>24)</sup> 자연은 역사적으로 예술의 전형과도 같은 모범적 대상이었고 대상의 모방으로서 예술개념은 자연의 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인간적 능력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sup>25)</sup>

콜링우드(R. G. Collingwood)<sup>26)</sup>는 자연에 대한 미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인간의 본연과는 대조적으로 정의되는 순수한 자연본연의 미, 둘째 인간의 의지에 따라 자연의 미에 인간의 감정을 첨가하여 생기는 아름다움, 셋째로는 일종의 자연미라 할 수 있는 모든

---

註 24) 백준기, <자연과 예술>, 전주교대 논문집, 1480, p.468

25) 한국 미학예술학회, <예술과 자연>, 미술문화, 1997, p.73

26) 콜링우드(Robin G. Collingwood) : 영국철학자, 사학자, 역사적 관점에서 구상되는 일대철학 체계를 추구한 저서로 <철학적 방법론(1933)>, <자연의 관념(1945)> 등이 있다.

인간 활동이 낳는 인위성을 거부하지 않는 미로 분류하였다.<sup>27)</sup>

다시 말하면 첫째는 자연의 미요, 둘째는 인간에 의해 재창조되는 지적인 미이며, 셋째는 인간이 창조한 결과로서 일종의 자연이 갖는 정신적 미라 할 수 있다. 이 중 진정한 자연의 미는 자연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탐구하는 인간의 예술창작 의욕이 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예술가의 심상에 따라 조형미로 형상화한다는 점이다.<sup>28)</sup>



[작품 3] < 자연 속의 나 > 2009

이와 같이 인간이 미의식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

註 27) 황영주, <생명력을 통한 유리조형 연구>, 남서울대학교 디지털 정보대학원, 2003. p.5

28) 이인철, <예술철학개론>, 정음사, 1978. p.94~107

자연은 인간에게 좋은 소재를 제공하는 미적대상으로 창작의욕을 부여해왔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예술의 미를 낳게 하는 모태가 되었기에 자연을 대상으로 한 예술적 표현은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연과 예술 그리고 인간과의 연관성 내지는 필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버드 리드(Herbert Read)<sup>29)</sup>는 “예술이야말로 인간 정신의 비전의 직접적인 척도”<sup>30)</sup>라고 했다. 인간은 예술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삶의 연속성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 다. 순환의 특성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서의 반복적 전략은 자기지시를 위한 것으로 동일한 형태를 반복한 것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미지는 단순한 동어 반복이 아니라 세계의 순환성을 반영하며 끊임없는 차이들의 연속성에 의한 것이다. 모더니즘 반복과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반복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로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1929~)<sup>31)</sup>의 작품에 나타난 물방울무늬와 무한망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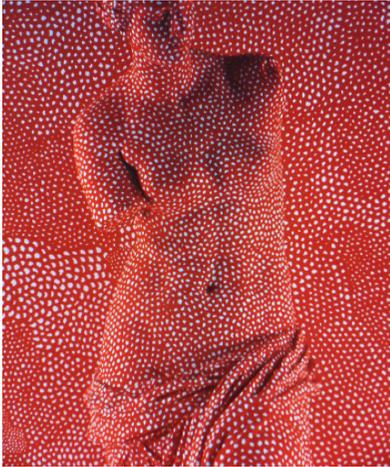
---

註 29) 하버드 리드(Herbert Read) : 영국시인, 예술 비평가, 본능적으로 감각과 본능에 기초한 유기예술(有機藝術)의 이론을 전개하였으며, 1953년에는 기사작위를 받았고 저서로는 <벌거벗은 용사(1916)>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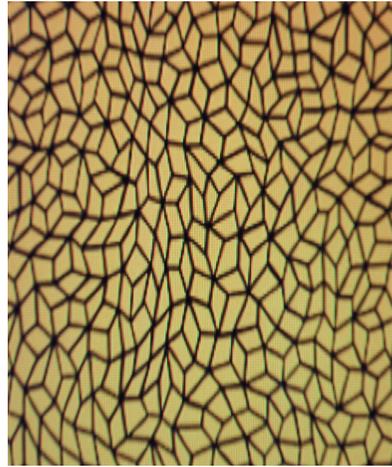
30) 하버드리드, 윤일주,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지 문화사, 1969. p.228

31)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1929~) : 일본출신의 설치 미술가, 1993 제 45 베니스 비엔날레, 2003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속적인 반복은 정신적 본질이 상징적 형태로 돌아온 것이며 쿠사마는 무한망 패턴을 집착하듯 계속 사용한 것과 그것의 역(逆) 베리에이션(Variation), 남근형의 축적과 물방울무늬의 근원을 ‘어린 시절 쿠사마’에서 찾고 있다.<sup>32)</sup>



〈도판 11〉 비너스, 2008



〈도판 12〉 무한망, 1952

쿠사마는 어린 시절 자신의 환상 속에서 나온 그물, 물방울무늬, 꽃들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 연출수단을 찾았으며, 결국 이로 인해 옷과 종이를 수 천점의 작은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고 창문과 거울, 그릇을 돌망치로 부수고 나뭇잎과 나비의 날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물모양을 오려내는 행위를 하게 된다.<sup>33)</sup> 쿠사마의 반복과 그물망은 어린 시절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녀의 작품세계 근원은 환상과 환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註 32) Laura Hoptman, Akira Tatehata and Udo Kultermann, “Kusama Yayoi” Phaidon press, Reprinted, 2003, p34

33) 손희락, 〈Y. Kusama, Mmerz, A. Kapoor 의 작품에 나타난 순환성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p.56



〈도판 13〉 화원, 1989



〈도판 14〉 PUMPKIMS, 1952

쿠사마의 ‘강박적 반복’은 스텔라(Frank Stella, 1936~), 워홀(Andy Warhol, 1928~1987)과 같은 작가들의 기계적 반복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쿠사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 안에서 느낀 성에 대한 공포, 여성의 역할에 대한 억압, 대량생산되는 문화적 상황에서 생존에 관한 음식으로부터 비롯된 강박증 등을 갖고 있다. 그는 이러한 심리적 측면을 반영한 작품들에까지 자신의 주요 모티브를 확장시키고 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모티브들은 쿠사마에게 일종의 치유방식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강박증을 다시 확인시키는 작업이기도하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심리적인 측면이 강한 ‘순환성’을 갖고 있다.

### Ⅲ. 방법적 연구

#### 1. 형상화된 생명 이미지

현대미술에서 선은 주요 조형 수단이며 작가의 표현행위 속에서 내재적 이미지의 함축된 도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작가의 내적인 상(狀)을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선은 자립적 시각대상이며 동시에 무언가를 표상하는 이중(二重)의 기능을 가진다. 그러한 선은 운동태(運動態)로서 의욕 되고 실행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의미하며 감각되는 자체로서 선의 특질, 기질, 성질을 의미한다.<sup>34)</sup> 또한 보편적으로 선이 가지는 의미는 기본적인 자연현상과 동일시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작품 4] 〈모 태〉 부분, 2009

---

註 34) 미학연구회, 〈미학〉, 문명사, 1983. p.224

칸딘스키(Kandinsky)는 그의 저서 ‘점·선·면’에서 “추상으로 생각할 때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다. 이것은 점이 움직여 나간 흔적, 다시 말해 점이 만들어낸 소산이다. 선은 점의 움직임에 생겨난다. 직선은 무한한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닌 가장 간결한 형태이며 선은 긴장 뿐 아니라 방향에도 참여한다.”<sup>35)</sup> 라고 선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칸딘스키는 선을 대상묘사의 수단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인간의 내적충동을 승화시킨 추상회화를 선으로 변화시켜 놓았으며, 자신의 내재된 직관적 심리를 통해 추상적 수직선과 수평선을 사용하였다. 수직이라는 것은 운동감이 없는 것을 나타내며 ‘죽음’과 대립되는 ‘생명’을 나타낸다. 수직의 의미는 더 나아가서 존엄성, 변화에 대한 저항, 시간의 무동성(無動性) 등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sup>3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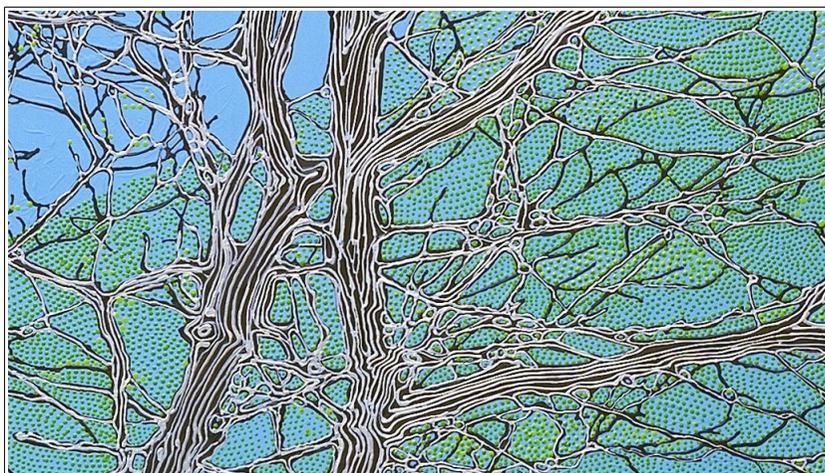
본인은 다양한 드로잉의 개념 중 접근방식으로서의 드로잉<sup>37)</sup> 이라는 측면에서 기법에 구애받지 않고 콘테, 파스텔, 오일스틱, 아크릴물감을 사용하여 선을 긋고 지우고 닦아내는 과정을 통해 소재를 그려내는 간파(看破)의 과정으로 삼고 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생명적 형상들은 그 자체가 거의 선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전체적 형상은 대개 세포나 원형질과 유사한 궁형의 곡선과 지그재그선, 직선을 이루고 있다.

註 35) 칸딘스키(Kandinsky), 차봉희, 〈점·선·면〉, 열화당, 1926. p.47

36) 김춘일·박남희,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1. p.26

37) Drawing의 몇 가지 실례

- 관계함으로서 - 그리는 운동, 신체를 살아있는 매체로 새롭게 고찰한다.
- 접근방식으로서 - 의미는 소재를 그려내기 위한 간파의 과정이다.
- 김복영, <현대미술연구>, 정음문화사, 1987, p.298, 302



[작품 5] 〈자연의 혈관 I〉 부분, 2009

“외면세계와 내면세계의 모든 현상을 선의 표현력에 의해 번역될 수 있다.”고 한 칸딘스키에 의하면 모든 선의 원천은 힘으로, 궁형곡선에는 성숙하고 당연한 자의식적인 에너지가 들어있다.<sup>38)</sup> 고 하였는데 본인의 유기체형상을 구성하는 선의 의미도 이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궁형곡선에서 느껴지는 힘, 움직임은 리드(H. Read)가 말한 바와 같이 음미되고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다. 즉 그 자체는 움직이지도 약동하지도 않으나 우리들 자신이 선의 경로에 따라 약동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sup>39)</sup> 선은 우연성이 내재된 자동 기술적 성격을 포함하고 생명적 형상에 대한 미완결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완결의 이미지란 어떤 형태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전체를 상징하는 형상일 수도 있고, 어떤 생물체의

註 38) Waissly Kandinsky (1926), 차봉희, <점·선·면>. 열화당, 1983. p.70

39) H. Read, 김윤수, <현대미술의 원리>, 열화당, 1985. p.63

극미한 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내면에 잠재해있는 심오하고 근원적인 생명감은 모든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기전의 원 생물적인 생명체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심연(深淵)에 있는 어떤 원초적 질료인 상(Icon)에서 예술가는 그 이미지의 내면적 생명감에 상응하는 객관적 형태와 생체를 가진 생명형상으로 낙서하듯이 그려나간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떤 이미지를 남기지만 그 이미지의 기원이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그러면서도 그것은 무엇인가 진실한 것, 필연성을 가진 것, 생명을 가진 현존을 이룬다.<sup>4 0)</sup>

선은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묘한 암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현의 쓰임에 아주 유용한 최상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점차 현실적 생명체의 전형보다는 새로운 생명적 전형을 찾아내려는 시도로 열린 시각과 일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독창적인 시각의 필요성을 느끼며 선을 이미지 형상화에 도입하고 있다.

## 2. 점으로 표현된 조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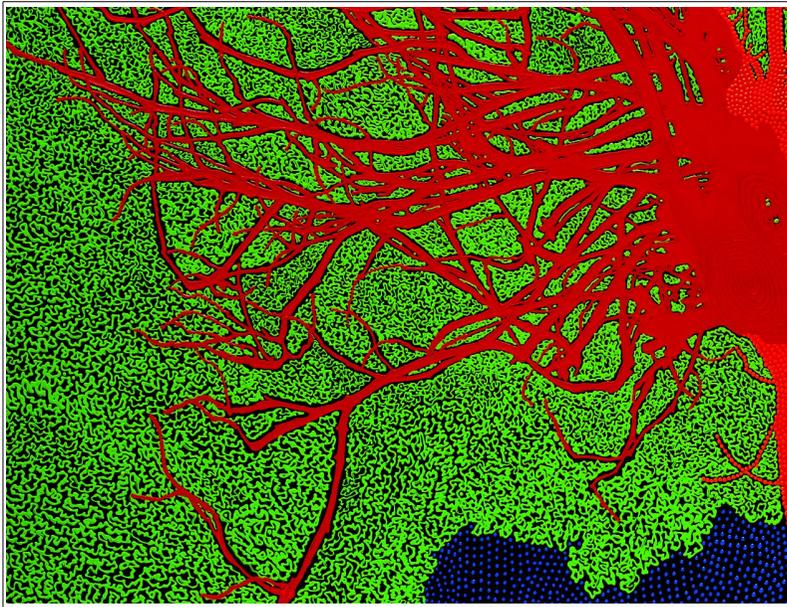
생명의 근원인 세포는 생물들의 특성 중에 하나인 유기적 과정의 움직임 속에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가운데 생명력을 지닌다. 세포는 새로운 유기체를 창조하고 형성하며

---

註 40) H. Read, 앞의 책, p.103

세포 자체 내에서의 생성을 통해 끊임없는 반복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세포는 생물계의 공존하는 모든 유기체들의 기본단위인 것이다. 세포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더욱 신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환상적이고 이색적인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 다채로운 형태의 변화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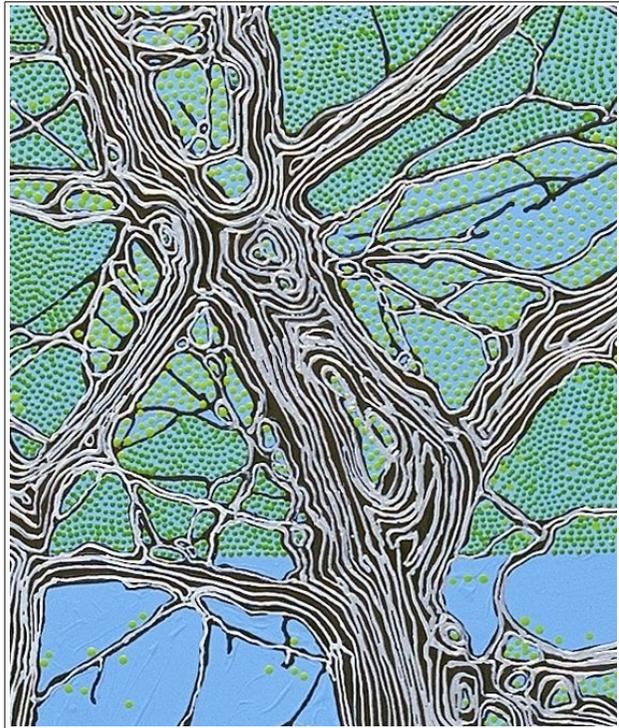
본인의 작업에서 세포 형태는 생명감의 표출이며 씨앗의 이미지이자 반복되는 시간의 알갱이로 표현되어 조형성을 이루고 있다.



[작품 6] 〈자연의 혈관 II〉 부분, 2009

그리고 나무의 세포번식과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이로부터 유발되어지는 생동감과 강한이미지를 세밀한 점을 이용하여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마치 직물의 짜임새와 그 모습이 흡사해 연속해서 생기는 세포막과 같고 그 배열은 통일성을 보이며 반복적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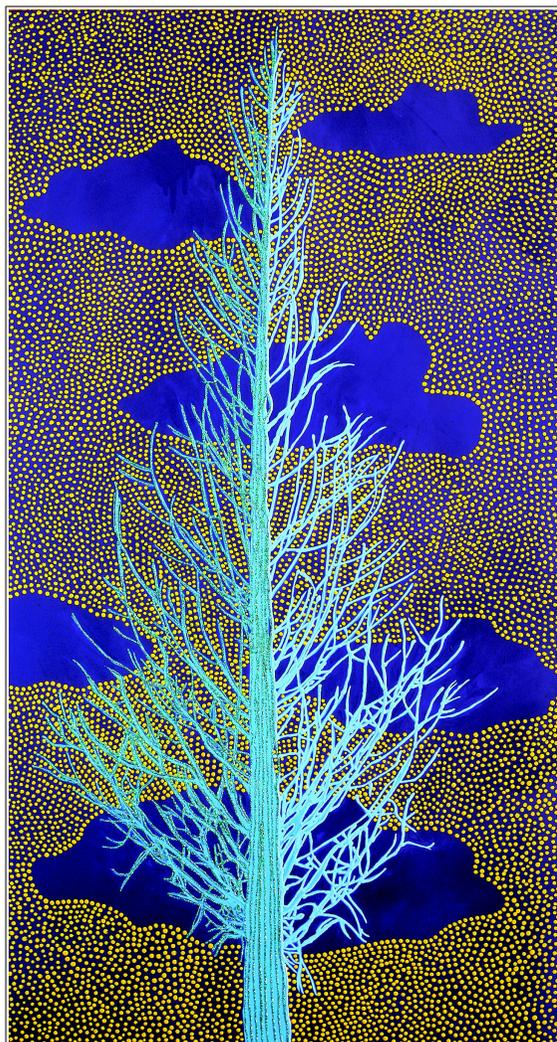
집적표현으로 점진적인 변화와 율동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화면(畫面)은 고정적인 화면으로 이루어지며 평면화(平面畵)의 원근법(遠近法) 없는 균질의 넓고 고른 색면(色面)과 화면으로 퍼져 나가는 듯한 평면이다. 또한 화면의 공간적 분할은 자연을 이용한 생성의 의미를 표현하는 화면 구성요소이며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점과 선을 이용한 면의 분할적 형태로 나타난다.



[작품 7] 〈자연의 혈관 III〉 부분, 2009

하지만 점·선·면은 입체적인 성격을 띠고 유동적이면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며 작품과정은 매우 느린 모습으로 제작되었으나 동적으로 생명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동시에 결과물에 있어서는 정적인 화면을 만날 수 있다. 유동적과 고정적이라는 대상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품 8>에서 보여주는 나무와 구름을 살펴보면 나무는 수직이고 구름은 수평적이다. 나무는 고정되어 있어 부동성을 상징하지만 구름은 유동성이며 우리 주위를 맴도는 산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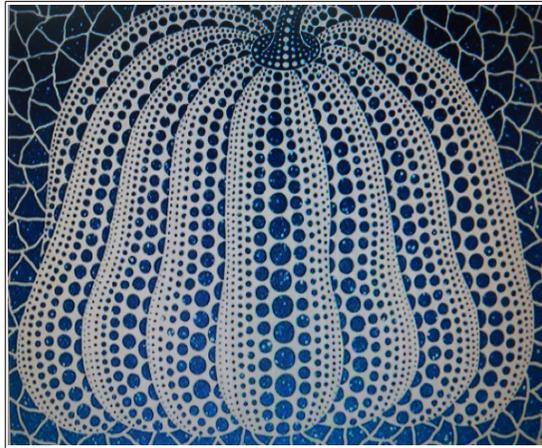


[작품 8] <자연-산소 I>, 2009

그리고 작품 속에서 점의 이동적 행위는 면을 만들어 주며 면은 색면의 만남으로 인해 한 화면의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

### 3. 표현 기법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정신세계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표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도판 15>는 쿠사마 야요이의 감성과 상상력, 심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과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인간 존엄성과 자아실현을 갈망하는 모습들이 내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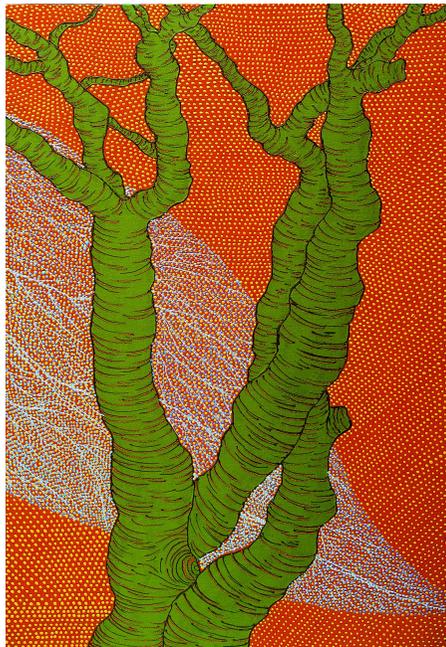
<도판 15> 쿠사마 야요이, <호박>, 1989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주의 신비 중 일부에 불과할지 모른다. 실제로 우리의 정신활동은 깨어 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되며, 꿈은 하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꿈과 희망은 일치점이 있고 잠재의식에는 우리들 자신의 진실과 감성이 숨겨져 있다.

본인은 작품화면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 순환 이미지의 내면적인 표현방법과 심상(心象)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러한 내면 저변에 자연적 요소들이 억제되어지고 통제되어져 나무라는 개체를 통해 생명의 순환적 조화로우며 화면의 진실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작품과 맞는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화면구성은 제한된 색을 사용하여 분할된 면 위에 조형의식을 통해 나타난 단순한 색의 의지로서 선이나 면 부분으로 내면의식과 일치시켜 생명력과 순환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법에는 마음 속 깊숙이 잠재해 있던 표현의지를 작업을 통한 소통의 방법으로 표현화 시키고자 했으며, 전체적인 <작품 1~16> 까지 내재된 기법은 화면 속에 나타난 혈관이미지와 자연의 나뭇가지, 강줄기로 표출되어 지고 있으며 아크릴을 짜서 점을 찍거나 선으로 표현하였다.

자연의 생명과 순환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인체 안에 존재하는 자연과 신비로움에 감동하고 느낀 것을 본인의 예술의지와 독자적 개념으로 형상화했다.



[작품 9] <자연의 심혈관> , 2009

최초의 행위는 연필선의 드로잉이며 무의식적으로 흐르는 연필선은 자연의 기하학적인 나무와 사물을 연출하고 있으며 의식적인 행위는 신중한 모션으로 아크릴로 찍거나 짜면서 점과 선을 이루는 방법이다.

작업 방법은 ① 패널위에 캔버스 천이 아닌 코팅되지 않은 면천을 씌워 ② 아크릴물감에 물을 섞어 묽은 상태로 몇 번의 밑칠을 하고 이미지를 스케치 한 후에 ③ 아크릴물감을 튜브에 담은 뒤 속도감 있게 짜면서 화면위에 볼륨감 있는 점과 선의 반복행위로 가변적인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럼으로써 평면이 공간 깊이를 나타내는 동시에 겹겹이 쌓여지는 중첩을 통해 시간성을 띄며 심상의 구상성을 구현하려 했다.

나무와 인간을 일치점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생명의 흐름을 붓 터치 대신 물감을 길게 짜면서 선을 형성하거나 점을 찍어서 세포와 혈관의 순수한 이미지로서 생명의 출발과 생성의 본질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IV. 작품 분석

### 1. 작품 개요

본인의 회화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 등 환경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강과 산이 있는 자연과 더불어 유년시절을 보냈기 때문인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물활론적 의미의 자연관에 대한 영향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 자연에 대한 경험과 기억, 꿈과 몽상 그리고 자연의 향수가 얽히어 외적표출로의 갈증을 느껴왔다.

우연한 기회에 첨단기계를 통해 본 몸 안의 혈관형상들이 예술의 조형성으로 다가와 자연의 나무형상과 강줄기를 빌어 생명의 순환 이미지를 세포와 같은 점의 무한한 반복과 선의 확산을 통하여 자연과 생명 순환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에서 쉽게 체험되어지는 현상들을 단순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전개하면서 점차 자연을 실체 그대로가 아닌 본인의 심상에 의한 생기 이미지로 본질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으로 재해석하여 그 표현을 구축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내면적인 자아를 통해 자연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함께 재구성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작업방법은 아크릴물감의 특성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선에 의해서 생기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느낌과 강인하고도 역동적이면서도 사실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생명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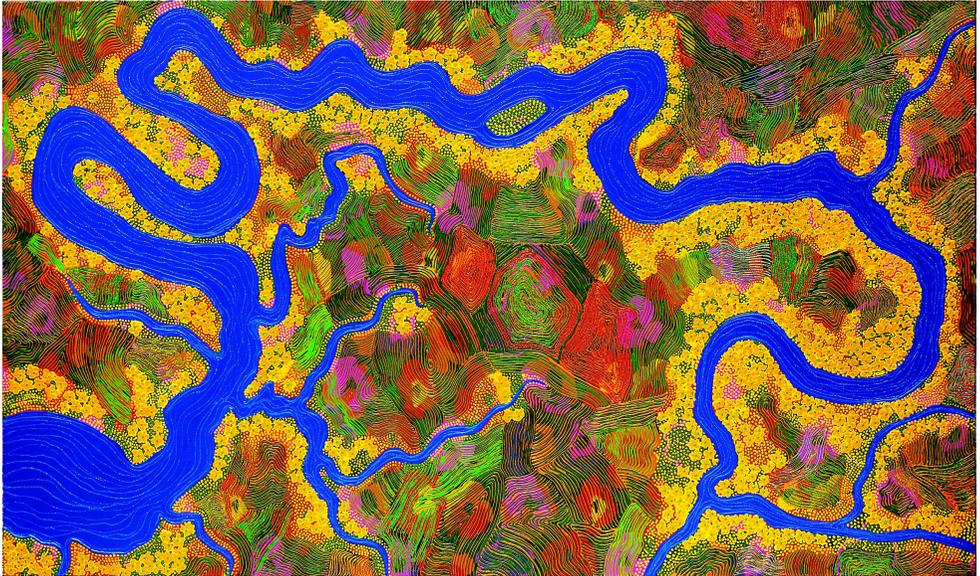
## 2. 본인 작품 분석



[작품 10] 〈자연의 뇌〉 98×86cm, 2009

자연현상에서 쉽게 체험되어지는 형상들을 단순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전개하면서 점차로 자연을 실체 그대로가 아닌 본인의 심상(心象)에 의한 생기이미지로 그 표현을 구축하고자 했다.

바탕의 청색은 꿈과 희망, 무한한 세계를 의미하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는 생각과 개념, 그리고 내면의 울림이다. 대자연의 생명력이 곧 뿌리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넓은 공간으로 확산해 가는 유기적인 형태의 흐름에서 인간의 고뇌와 혼돈으로 가득 찬 두뇌의 활동의지로 그 이미지를 표면화시키고자 했으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암시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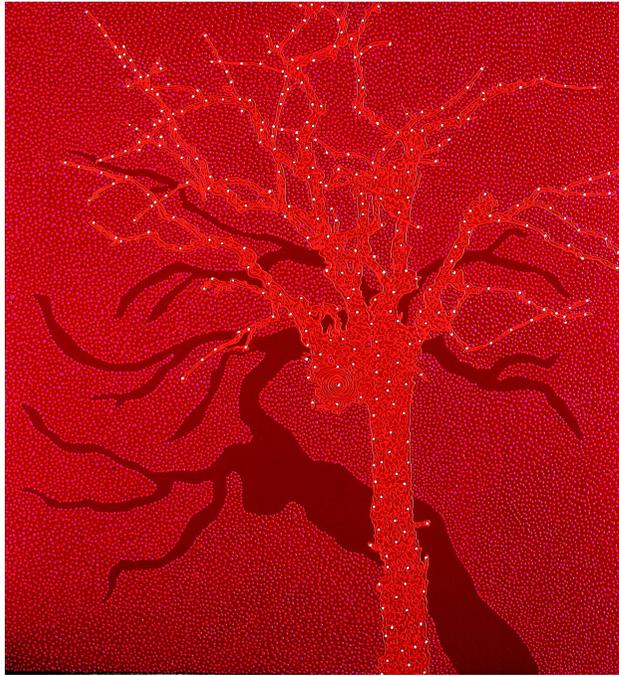


[작품 11] 〈생명의 순환〉 102×73cm, 2009

이 작품은 자연의 실경을 모티브로 했으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속의 산과 물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강과 산이 있는 자연과 더불어 유년시절을 보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물활론적 의미의 자연관에 대한 영향은 내면에서 떼어낼 수 없는 적(敵)이다. 오히려 자연에 대한 경험과 기억, 꿈과 몽상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가 얽히어 외적 표출로의 갈증을 느낀다.

자연의 질서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사계절, 그 중에서 우주의 힘이 형성되는 봄을 그렸고 이 강줄기는 어릴 적부터 보아온 영산강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12] 〈자연과 인간은 빛과 그림자〉 80×90cm, 2009

자연의 주기적 순환이나 영원회구에 근거를 두고 우주적 리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하고 상호 모순되는 듯한 긴장상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붉은 색 점에 둘러싸인 그림자 이미지는 인간형상으로서 빛으로 표현된 나무 이미지의 자연과 함께 존재한다. 화면의 점들은 무한한 공간에서의 세포의 움직임이고 중앙의 나무는 혈액을 품어주는 심장과 같은 의미이며 태양과 같은 빛이다. 정지된 공간에서 그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상상을 초월한다.

붉은색은 흥분·열정·혈액의 왕성한 순환의 의미로써 탄생과 생명의 색을 의미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자연과 인간은 빛과 그림자’ 일수밖에 없는 인간과 자연의 순환을 뜻한다.



[작품 13] 〈열정의 가지〉 112.5×162cm, 2009

보이지 않는 화면에 흐르는 무한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공기의 흐름은 공간사이에 존재하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자연대상과의 접촉 또는 경험에서 오는 내적 반응들을 의미한다. 나무의 모체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포근한 안정감과 유기적인 곡선의 가지 형태에서 원초적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하얀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깊이 박고 많은 땅의 전설을 들으며 온몸은 하늘을 향하여 끝없는 손짓을 한다. 땅의 전설과 하늘이야기를 연결하는 통로와 다리 역할을 하는 나무는 비바람과 별빛 속에서 고통과 자유의 모습을 함께 보여준다.

나무에서 인간, 즉 나의 모습과 일치점을 찾아 생명을 그려 내고 자했다.



[작품 14] 〈자연-산소Ⅱ〉 부분, 85×115cm, 2009

“잠이 들었다. 잠든 사이 가로등이 켜졌다. 노랑 가로등이 켜지는 사이 내 몸의 가지들은 몸속으로만 뻗어나갔다. 몸속의 가지들이 자라는 사이 별들이 쏟아져 내려 씨앗이 되고 내 몸속에선 점점이 꽃이 되어 피어났다.

그 꽃들은 씨앗이 되고 시간이 되어 내 화면(畫面)에 내려와 춤 춤히 박힌다.”

- 작업노트 중에서, 2009 -



[작품 15] 〈생명의 가지〉 98×86cm, 2009

붉은 선과 청색 선으로 된 큰 나무줄기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여기에는 원경·중경·전경이 생략되고 단지 대상의 확대를 극대화시켰다. 인체의 팔뚝에 불거진 힘줄과 같은 나무기둥은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 시야에 다가선다. 그 속의 생명의 움직임을 더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함이다. 줄기에 붙어있는 점들은 세포이며 또 다른 생명체의 힘있는 탄생이고 성장을 의미한다.

생명의 근원과 경이로움, 그리고 순환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질서와 법칙을 깨달으며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겸손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16] 〈생명선〉 176.5×175cm, 2009

대지에 뿌리박고 서있는 나무의 모습은 인간들의 형상과 너무도 비슷하다. 끝없는 하늘로 상승을 추구하듯이 두 팔을 뻗고 있는 듯한 모습과 순환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다. 외적인 영향으로 휘어져있는 형상, 이것은 우주를 상징하는 원형으로 우주의 리듬을 타고 항해하는 듯하다. 그리고 알맹이는 쉴 새 없이 흐르는 대열을 따라 묵묵히 일련의 순환과정을 실현하려는 의지이며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이 도발적이지 않게 기본적인 질서위에 순응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화한다.

순환이라는 작업은 인간의 생명이나 의식을 높게 발현시키고자 함이고, 현실위에 삶의 지표로서 자극제가 될 것이며 이미지의 반복과 확산,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순환이미지 관찰을 통한 정신의 반영이며 표현이다.

## V. 결 론

인간이 자연의 순환 질서를 이해하고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법칙대로 순응하고자 할 때 풍요로운 삶을 꿈꿀 수 있으며, 내면의 참된 질서와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연을 돌아보는 것은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본연의 특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타고난 모든 가치판단이나 사회적인 구속으로부터 완전해방, 곧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의 추구라고 설명할 수 있다.

자연은 예술 활동에 있어서 무한한 소재를 제공해 주며 자연을 체험한 감동으로부터 미의식은 자신의 정서와 생각으로 표출되어 예술로 창출되었다. 콜링우드 는 자연에 대한 미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진정한 미는 자연을 대상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창조한 예술의 결과이다.” 라고 했듯이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예술가의 심상에 따라 조형미로 형상화 한다는 점이다.

본인이 탐구하는 생명적 형상도 공간과 시간 속에 자리 잡은 생명력을 지닌 어떤 개체, 즉 자가 증식과 번식을 하는 자율적인 생존구조를 가진 생명체의 형상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기적 생명체들의 이미지에서 얻은 상상력과 과학의 힘인 첨단기계를 통해 들여다 본 우리 몸안의 혈관에서 동기를 제공받아 생명의 원초적 형태를 상징시각으로 형태화하고 조형화하는 과정을 작품 제작과정으로 삼았다. 자연의 기하학적인 나무의 형태와 인체안의 혈관 조형미를 표현함으로써 생명과 순환 이미지를 언급했으며, 점으로 표현된 세포의 집적인

반복과 선의 반복으로 평면적 회화의 시대 감각적 표현과 순환성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본인의 작품 속에 주로 표현되는 점, 선의 조형적 전이로써 주어진 화면의 변화와 과정 등을 작품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화면에 내재된 기법과 외적인 표출행위에 대해 짚어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표현된 내용과 표현하고자 한 바가 다소 일치하지 못한 채 작품들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뒤따른다. 또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관념에서 생명 이미지의 은유적 적용에 치중하여 화면의 구조가 자칫 정태적(情態的)이고 평면적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러한 점은 본인이 추구해왔던 생명적 현상 개개의 이미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다 폭 넓은 사고와 경험으로 조형적인 작업에 내재한 기능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때 극복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작품으로 연결되는 순환의 과정은 본인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낙준, 〈인체〉, 금성출판사, 1989
- 김복영 〈현대미술연구〉, 정음문화사, 1985
- 김지하, 〈현대문명의 위기와 시대정신〉, 서울 안암문화사, 1985
-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 김춘일·박남희,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1
- 미학연구회, 〈미학〉, 문명사, 1983
- 박용숙, 〈한국의 미학사상〉, 문학과 지성사, 1985
- 백준기, 〈자연과 예술〉, 전주교대 논문집, 1980
- 이인철, 〈예술철학 개론〉, 정음사, 1978
-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73
- 한국 미학예술학회, 〈예술과 자연〉, 미술문화, 1997
  
- F. Gregoire, 김형호, 〈생명의 문제〉, 삼성문화문고, 1974
- Herbert Read, 윤일주, 〈예술이란 무엇인가〉, 을지문화사, 1969
- Herbert Read, 김윤수, 〈현대미술의 원리〉, 열화당, 1985
- Jaffe Aniela, 이희숙, 〈미술과 상징〉, 열화당, 1995
- Kandinsky, 차봉희, 〈점·선·면〉, 열화당, 1926
- Movtan White, 신인철, 〈20C 철학자들-언어와 분석시대〉, 서광사, 1987

- Suanne Langer, 박용숙,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화출판사, 1984
- 히키노신지, 임종환, 〈인체 대기행〉, 진선출판사, 1992
  
- Laura Hoptman, Akira Tatehata and Udo Kultermann, "Kusama Yayoi" Phaidon press, Reprinted, 2003, p34
  
- 김소라, 〈기초적 형상을 통한 내면세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논문, 1986
- 손희락, 〈Y. Kusama, M. merz, A. Kapoor 의 작품에 나타난 순환성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 이일, 〈조형 형태론-홍익논문집 III〉, 홍익대학교 출판부, 1971
- 황영주, 〈생명력을 통한 유리조형연구〉, 남서울대학교 디지털 정보대학원, 2003

## 도 판 목 록

〈도판 1〉	몽크, ‘절규’ 1893 -----	12
〈도판 2〉	다빈치의 ‘자화상’, 1513 -----	13
〈도판 3〉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비례 -----	13
〈도판 4〉	다빈치가 그린 해부도 -----	13
〈도판 5〉	피부 안에 있는 감각점 -----	14
〈도판 6〉	치아의 단면 -----	14
〈도판 7〉	귀의 전정기관을 확대한 그림 -----	15
〈도판 8〉	허파의 혈관 -----	15
〈도판 9〉	모세혈관과 폐포 구조 단면 -----	15
〈도판 10〉	심장 혈관 -----	15
〈도판 11〉	쿠사마 야요이, ‘비너스’, 2008 -----	19
〈도판 12〉	쿠사마 야요이, ‘무한망’ 1952 -----	19
〈도판 13〉	쿠사마 야요이, ‘화원’, 1989 -----	20
〈도판 14〉	쿠사마 야요이, ‘PUMPKIMS’, 1952 -----	20
〈도판 15〉	쿠사마 야요이, ‘호박’, 1989 -----	28

## 작 품 목 록

〈작품 1〉	직선적인 표현(부분), 2009 -----	5
〈작품 2〉	곡선적인 표현(부분), 2009 -----	5
〈작품 3〉	자연속의 나, 2009 -----	17
〈작품 4〉	모태 (부분), 2009 -----	21
〈작품 5〉	자연의 혈관 I(부분), 2009 -----	23
〈작품 6〉	자연의 혈관 II(부분), 2009 -----	25
〈작품 7〉	자연의 혈관 III(부분), 2009 -----	26
〈작품 8〉	자연 - 산소 I, 2009 -----	27
〈작품 9〉	자연의 심혈관, 2009 -----	29
〈작품 10〉	자연의 뇌, 2009 -----	32
〈작품 11〉	생명의 순환, 2009 -----	33
〈작품 12〉	자연과 인간은 빛과 그림자, 2009 -----	34
〈작품 13〉	열정의 가지, 2009 -----	35
〈작품 14〉	자연 - 산소 II(부분), 2009 -----	36
〈작품 15〉	생명의 가지, 2009 -----	37
〈작품 16〉	생명선, 2009 -----	38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학과	학 번	20087174	과정	석사
성 명	한글: 정 정 임    한문: 鄭 正 任    영문: Jung Jeong-im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3동 금호타운 301동 703호				
연락처	E-mail : dami 0803 @ 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자연과 생명순환 이미지의 회화적 표현				
	영문 : Pictorial Expression of Images of Nature and Life Circula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2010년 2월

저작자: 정 정 임 (인)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